

#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즐거운 삶

옛말에 ‘待人春風(대인춘풍)’ 이요 ‘持己秋霜(지기추상)’ 이라는 말이 있다.

즉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훈훈하고 너그러워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가을서리처럼 냉정하고 엄격하라’는 가르침이다. 남에게 하는 말은 점잖고 조심스럽게, 가능한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해야 한다.

고흥길 의원이 삼고 있는 좌우명이다.

좌우명과 함께 고흥길 의원에게 이웃사랑의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가톨릭 신앙이다.

가톨릭 신앙은 신자로서 대범함과 관대함, 겸양의 미덕을 늘 잃지 않도록 고의원을 지켜주는 잣대이며 또한 이웃사랑에 보다 더 큰 노력을 경주하라는 지침이 되고 있다. 늘 반성하게 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삶이 즐거운 삶이라는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데 가톨릭 신앙은 큰 힘이 되고 있다.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고흥길 의원은 가톨릭 신자인 이회창(올라프) 전 한나라당 총재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평생 업이라고 생각해 왔던 언론계를 떠나 2000년 16대 총선에서 성남시 분당갑구에 출마하여 정치계에 입문. 현재 재선의원을 지내고 있다.

16대 국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와, 문광위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과 한나라당 미디어 대책특별위원장, 국회언론 발전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7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활동 문화관광위원회를 거쳐 현재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장애인 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대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결산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활동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가톨릭 신앙이 생활에 주는 영향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속의 험난한 여정에 노출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때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보

# 신자국회의원 고흥길 바오로

글 · 편집국 / 사진 · 지성진(JIS포토)

살핌이 전제되는 가정이 없다면 어떻게겠습니까?

외롭고 힘든 일상이 지속될 것이며, 올바른 사회적 인격체로서 성장하기가 힘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처럼 가톨릭 신앙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는 노력이 전제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 질 것입니다. 즉 가톨릭 신자들은 스스로를 기록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들면서 형제적 사랑을 남녀노소, 국적불문, 인종불문 등 실천해 나간다면 세계의 평화와 행복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하느님 나라로 한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즐거운 삶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고흥길 의원.  
그래서인지 누구를 만나도 낯설지 않게 포근하게 감싸는  
강물 같은 사랑을 품고 있는  
고흥길 의원의 삶과 신앙을 들어본다.

●신자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풀  
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첫째, 혼혈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미식축구 하인스 워드 선수가 방한했을 때 낯이 후끈거렸습니다. 가톨릭의 이념으로 볼 때 인종간 차별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혼혈인을 단지 다른 피부색을 갖고 있는 평등한 인격으로 대하는 성숙된 사회적, 문화적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미혼모를 비롯한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입니다. 미혼모 문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풀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가톨릭의 이념은 낙태를 반대합니다. 미혼모 역시 스스로

원해서 미혼모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 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대일 멘토(mentor)를 활성화 시켜 어린 소년소녀 가장들의 부담을 사회가 나누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

가톨릭 병원은 다른 병원과는 무엇인가 다르다는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친절하고, 보다 환우의 입장에서 보살펴 주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느님의 품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을 느끼듯 가톨릭 병원은 하느님의 품안을 닮아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